

블루 혹은 레드, 선택의 기로에 선 모바일 코리아

산업 사회에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가 대의를 위해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을 헤치고, 소수의 희생을 감수하며 목표를 향해 질주했다. 이어 출현한 지식정보 사회는 미래에 벌어질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지식정보가 산업 사회의 리더를 대신하게 된다. 이 사회는 지식정보를 통해 사회 구성원이 개인화되며 동시에 집단화된다. 집단화된 구성원 간에 흐르는 포플러리즘이 사회적 결정을 주도한다. 그러나 개인이나 집단이 소유한 지식정보가 완벽하지 않아 포플러리즘은 경우에 따라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시대이기도 하다. 산업 사회와 지식정보 사회의 불완전성과 모순은 재화나 정보의 소유 논리에 근거하기 때문에 발생된다. 다가올 미래의 이상적인 유비쿼터스 사회는 산업 사회와 지식정보 사회의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사회다. 사회적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지식을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어 부정적 작용이 가능한 대중 여론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다. 이 사회는 공유의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산원의 <2005 국가정보화백서>에 따르면 주요 50개국의 국가정보화지수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1988년까지 20위권 밖에 머물렀으나 이후 수직 상승해 2005년에는 스웨덴과 미국에 이어 3위로 부상했다. 산업 사회의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성공적으로 지식정보 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얼마 전 미국의 포춘지는 우리나라를 '광대역의 신기한 나라(Broadband Wonderland)' 라고 칭하면서, 국민 대부분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이 작은 나라가 디지털 미래의 거인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휴대전화로 전화 통화는 물론 친구 찾기·뱅킹·숙제·전자 쇼핑·가스 검침·자판기·노래방·전철 패스 심지어 기말고사에도 유용하게(?) 활용되는 우리나라의 모바일 환경을 경이로운 시각으로 조명했다. 우리는 유비쿼터스 사회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길목인 모바일 시대를 성공적으로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아직 IT 버블 붕괴의 여진에 힘든 면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정말 잘해왔다.

그러나 최근 몇 가지 일들은 과연 우리나라가 유비쿼터스 사회로 순탄하게 진입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게 한다. <미르의 전설>로 승승장구 하던 액트즈소프트의 매각에 이어 나스닥에 등록돼 국내 DC업체들의 꿈의 대상이었던 그라비티가 보유 주식의 과반수를 최근 해외 업체에

매각했다. 국내 기업간 매수 매각이라면 발전적 현상으로도 볼 수 있으나 매수 업체가 중국이나 일본 기업이라는데 충격이 크다. 전 세계 시장의 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한국의 온라인 게임 산업이 중국과 일본이라는 넷 크래커(Nut Cracker) 사이의 호두 신세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와 함께 상생 관계에 있어야 할 무선망 사업자, 포털 사이트 그리고 CP 간의 무선망 개방을 둘러싼 잡음이 몇 년 동안 끊이지 않는다. 대형 사업자는 힘의 논리에 기대고, 소형 사업자는 집단을 통한 부정적 포플러리즘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

통신·방송 융합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독일은 1997년에 이미 통신·방송 융합에 관련된 법을 제정해 컨버전스 시대를 준비해 왔다. 반면 우리는 통신·방송 융합이나 방송·통신 융합이나 용어 위치 문제로 이해 당사자간 기 싸움이 아직까지 팽팽하다. 방송업계 측은 영어나 한글 자모순에 있어서 방송(Broadcasting)이 통신(Telecommunication)보다 앞서니 방송·통신 융합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고, 통신업계 측은 과학기술 역사에서 통신 기술이 방송 기술보다 앞서기 때문에 통신·방송 융합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용어의 위치가 융합의 주도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당사자들의 의식은 아직 산업 사회에 머물고 있는 듯하다.

유비쿼터스 사회 문턱에 선 우리들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행태는 우리가 아직 지난 사회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 새로운 옷을 입기에 우리의 몸이 너무 왜소하거나 비대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할 때다.

내가 살기 위해 너는 죽어야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화병에 넣은 꽃은 나만 보고 곧 죽지만, 마당에 심은 꽃은 너와 내가 오랫동안 즐겁게 볼 수 있고 씨를 받아 옆집 마당에도 심을 수 있다. 지금 모바일 코리아라는 배는 U코리아라는 항구에 도착하기 위해 푸른 바다와 피바다중 어느 항로를 택해야 할지 기로에서 있다. 🌪